

#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예측 요인

한상숙<sup>1</sup> · 한정혜<sup>2</sup> · 윤은경<sup>3</sup>

<sup>1</sup>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sup>2</sup>강북구보건소 정신보건센터 팀장, <sup>3</sup>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시간강사

## Predictors of Employment Intention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

Han, Sang-Sook<sup>1</sup> · Han, Jeong Hye<sup>2</sup> · Yun, Eun Kyoung<sup>3</sup>

<sup>1</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Hee University

<sup>2</sup>Manager, Gangbuk-gu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sup>3</sup>Part-time Instruct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predictors of employment intention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

**Methods:** Mentally disabled persons who had participated in rehabilitation programs in one of 16 mental health centers and 9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A random sampling method was used and 414 respondent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Data was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Win 14.0. **Results:** The predictors influencing employment intention of the mentally disabled person were observed as employment desire ( $\beta=.48$ ), guardian's expectation ( $\beta=.26$ ), professional's support ( $\beta=.23$ ), financial management ( $\beta=.10$ ), eating habits ( $\beta=.07$ ), and quality of life ( $\beta=.01$ ). Six factors explained 61.1% of employment intention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Conclusion:** The employment intention of a mentally disabled person was influenced by employment desire, diet self-efficacy, guardian's expectation, professional's support, quality of life, financial management and eating habits.

**Key words:** Employment, Mentally disabled person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WHO (1980)에서는 장애인을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 활동을 자력으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Disabled Persons Welfare Act, 2004).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범주는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Disabled Persons Welfare Act, 2004), 2000년 1월 1일부터 정신장애를 장애범주에 포함시키고,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이 비로소 표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처음 제정되면서부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중요한 재활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정신장애인들에게 자유로운 환경과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기본 이념을 가지고 정신보건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0년에 개정된

주요어 : 취업, 정신장애인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un, Eun Kyoung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305 Fax: 82-2-961-9398 E-mail: ckyun2008@gmail.com

투고일 : 2008년 5월 8일 심사회의일 : 2008년 5월 16일 게재확정일 : 2008년 7월 14일

정신보건법에서는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의 제공 및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Mental Health Act 13),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위한 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Mental Health Act 15).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는 2006년 전국적으로 105개의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19,688명의 정신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147개소에 3,591명이 등록되어 지역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Mohw, 2007). 이러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하여 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가지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직업 기술 부족이 아니라, 취업에 대한 동기 부족과 목표의 상실감이라고 할 수 있다(Pilisuk, 2001).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동기는, 직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가능하며,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과정에서 취업의지 수준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지가 필요하다(Bond et al., 2001).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왜곡된 고정 관념과 편견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로의 복귀와 적응이 어려운 현실이며 정신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인관계나 가족관계, 직장생활, 일상생활 등의 전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적응이 힘들다(Lee, 2003). 그러므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하여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 함께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의 사회적응 효과성에 대한 연구(Lee, 2005),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욕구 조사(Nam, 2002),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및 취업 여부와 관련된 연구(Choi, 2005; Tsang, Ng, Chiu, & Mann, 2000)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상자들이 얼마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정신장애인의 취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참여와 삶의 질의 관계(Woo, 2002), 정신장애인의 일반적 기능수준과 직업유지와의 관계(Choi, 2002)가 연구되었으나, 연구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며, 이러한 요인이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정신장애인 대상 취업욕구 선행 연구에

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 받았거나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직업에 대한 중요성과 직업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고, 취업에 대한 욕구도 매우 높은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Nam, 2002). 또한 정신장애인의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장애에 대한 적응 정도와 관련될 수 있으며, 장애인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의 사회적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Lee, 2001). 그 밖에 보호자의 환자에 대한 기대는 정신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Anthony, 1994) 가족의 지지체계와 함께 사회적 지지도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된 바 있다(Choi, 1999; Ryu,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된 요인들을 기초로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중재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를 높여 사회에 적응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보건센터와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정도와,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예측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삶의 질, 취업욕구, 자아 존중감, 보호자의 기대, 친구의 지지, 전문가의 지지, 일반적 기능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정도와 삶의 질, 취업욕구, 자아 존중감, 보호자의 기대, 친구의 지지, 전문가의 지지, 일반적 기능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취업의지 예측 요인을 분석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에 대한 예측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법을 이용한 서술적 인과관계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소재 정신보건센터 11개소, 경기지역 소재의 정신보건센터 5개소와 서울지역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5개소, 경기지역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4개소 등

총 25개소에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으로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 도구

### 1) 취업의지

취업의지는 일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Van Dongen, 1996), 본 연구에서는 Van Dongen (1996)이 직업재활 전문가와 함께 개발한 '직업의 의미에 대한 인식' 중 취업의지 부분을 Choi (1999)가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총 7문항, 5점 척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점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i (199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 2) 삶의 질

삶의 질이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개인 자신이 인지하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Lehman, 1983),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특성상 질문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매우 불만' 1점에서 '매우 만족' 10점까지 도수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취업욕구

취업욕구란 직업을 얻거나, 직업을 얻기 위해 바라는 욕망으로(Kim, 2006), 척도는 정신장애인의 특성상 질문을 단순화하여 '전혀 원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원함' 10점까지 도수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평가로 자신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이 자신을 능력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존재라고 믿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Coopersmith, 1981),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1973)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를 Chun (1974)이 번역한 총 10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점수 범위는 문항 평균평점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계수는 .85, 본 연구에서는 .73이었다.

### 5) 보호자의 기대

보호자의 기대란 정신장애인에 대해 그의 부모나 가족이 인

식하는 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말하는 것으로(Anthony, 1994), 본 연구에서는 Van Dongen (1996)이 개발한 '직업의 의미에 대한 인식' 중 Choi (1999)가 번역하여 사용한 6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 범위는 문항 평점은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호자의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i (199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 6) 친구의 지지

친구의 지지란 사회적 지지의 한 유형으로 친구에 의해 제공되는 정서적 상호작용과 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Vaquera & Kao, 2008), 본 연구에서는 Dahlem, Zimet과 Walker (1991)가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Choi (1999)가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 중 친구의 지지부분만을 사용하였다. 친구의 지지는 4문항, 5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문항 평점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i (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 7) 전문가의 지지

전문가의 지지란 지역사회에서 근무자가 정신장애인의 사례 관리 및 취업에 관련한 지도와 직업 알선,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으로(Mechanic, 1986), 본 연구에서는 Dahlem 등(1991)이 개발한 MSPSS 도구 중 Lee (2000)가 사회적 지지 부분을 번역하여 사용한 4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문항 평점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가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200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 8) 일반적 기능 수준

일반적 기능 수준이란 직업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초가 되며, 각 생활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Wehman & McLaughlin, 1980),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기능 수준은 Katz와 Akpom (1976), Lawton과 Brody (1969)가 개발한 도구를 Choi (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매우 못한다' 1에서 '매우 잘한다' 5까지 5점 척도로 각 영역별 및 전체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은 식사습관(3문항), 개인위생(4문항), 용도관리(5문항), 주변정리(3문항), 금전관리(2문항), 건강관리(3문항), 일상생활(5문항)로 7개 영역, 총 25문항이다. Choi (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93,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 3. 연구 진행 및 자료 수집

#### 1) 사전 연구

본 연구의 진행은 사전연구와 본 연구로 진행되었다. 사전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종속 변수인 취업의지와 독립변수인 삶의 질, 자아 존중감, 보호자의 기대, 친구의 지지, 전문가의 지지, 일반적 기능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선정하여, 지도교수 1명과 정신보건간호사 2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명과 함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여 최종 56문항을 선정하였다. 도구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서울시 1개 정신보건센터에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35명을 대상으로 2006년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 2) 본 연구

본 조사는 2007년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접근성과 협조가 용이한 서울과 경기지역의 정신보건센터팀장과 사회복지시설장에게 연구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고, 기관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도움을 얻어 현재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중 본 연구에 참석할 것을 허락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은 대상자가 자가 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정신장애인의 기능상의 특성으로 문항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관 근무자의 보충 설명을 통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442부가 배포되었고, 이 중 419부(94%)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 응답 설문지 5부를 제외한 총 414부를 최종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취업의지, 취업요구, 삶의 질, 자아 존중감, 보호자의 기대, 친구의 지지, 전문가의 지지, 일반적 기능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와 관련 요인간의 관계와 다중공선성은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취업의지 영향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결혼 여부,

학력, 의료보장, 주보호자, 주거상태, 입원 횟수, 연령, 기관 이용기간, 진단명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63.5%, 결혼여부는 미혼(81.4%)이, 학력은 고졸(57%)이 가장 많았다. 의료보장은 의료보험(63.5%)이, 주보호자는 부모(75.1%)가 가장 많았고, 주거상태는 자가(49.8%)가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나이는 36-40세(23.4%)가 가장 많았다. 지역사회기관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나이는 30-40대가 많았으며, 프로그램 이용 기간은 6개월-1년 미만(63.3%)이 가장 많았다. 정신질환 진단명은 정신분열병(79.9%)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의지는 모두 차이가 없어( $p>.05$ ) 회귀분석에 고려되지 않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14)

Characteristics	Category	n	%	t or F	p
Gender	Male	263	63.5	0.152	.879
	Female	151	36.5		
Age (yr) M=37.9	Under 30	82	19.8	1.410	.230
	31-35	93	22.5		
	36-40	97	23.4		
	41-45	66	15.9		
	Above 46	76	18.4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16	3.9	0.630	.641
	Middle school	42	10.1		
	High school	236	57.0		
	Above university	120	29.0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263	63.5	1.364	.257
	Medicaid	139	33.6		
	Others	12	2.9		
Primary guardian	Parents	311	75.1	0.496	.738
	Brothers or sisters	59	14.3		
	Relatives	7	1.7		
	Others	37	8.9		
Living condition	Own house	206	49.8	1.113	.350
	Yearly rental house	97	23.4		
	Monthly rental house	37	8.9		
	Permanent rental house	44	10.6		
	Others	30	7.2		
Marital status	Single	337	81.4	0.768	.513
	Married	24	5.8		
	Divorced	41	9.9		
	Others	12	2.9		
Length of program participation M=2.3 yr	Less than 6 month	140	35.7	2.376	.094
	6 month-1 yr	262	63.3		
	Over 1 yr	12	1.0		
Diagnosis	Schizophrenia	331	79.9	1.046	.390
	Mood disorder	28	6.8		
	Depression	26	6.3		
	Alcoholism	2	0.5		
	Others	27	6.5		



## 2. 취업의지와 관련요인들의 정도

취업의 의지는 Table 2와 같이 평균 평점은 3.78이었다. 취업의 의지에 미치는 요인들의 정도를 보면 삶의 질이 5.12점, 취업욕구 6.20점, 자아존중감 3.17점이었다. 보호자의 기대는 3.68점, 친구의 지지는 2.88점, 전문가의 지지는 3.73점이었고, 일반적인 기능수준은 평균 3.45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 중 식사습관은 3.33점, 개인위생은 3.80점, 용모관리 3.77점, 주변정리 3.45점, 금전관리 3.42점, 건강관리 3.79점, 일상생활은 3.47점이었다.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Variables	Mean (SD)
Criterion variable	
Employment intention	3.78 (5.27)
Predictor variable	
Quality of life	5.12 (2.01)
Employment desire	6.20 (2.75)
Self esteem	3.17 (5.54)
Guardian's expectation	3.68 (4.87)
Friend's support	2.88 (3.57)
Professional's support	3.73 (3.00)
Activity of daily living	3.45 (15.65)
Eating habit	3.33 (2.22)
Hygiene	3.80 (3.11)
Appearance care	3.77 (3.97)
Environment arrangement	3.45 (2.89)
Financial management	3.42 (1.91)
Health management	3.79 (2.31)
Daily life	3.47(3.90)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2	-.049															
x3	.657**	-.045														
x4	.079	.331**	-.006													
x5	.547**	.030	.389**	.099*												
x6	.097*	.235**	.005	.188**	.121*											
x7	.432**	.144**	.191**	.147**	.315**	.236**										
x8	.277**	.124*	.149**	.317**	.186**	.106*	.207**									
x9	.310**	.119*	.201**	.302**	.228**	.098*	.228**	.453**								
x10	.363**	.129**	.260**	.300**	.224**	.093	.325**	.428**	.675**							
x11	.278**	.128**	.203**	.257**	.164**	.126*	.198**	.491**	.544**	.506**						
x12	.358**	.092	.219**	.270**	.185**	.097*	.280**	.441**	.439**	.479**	.456**					
x13	.371**	.075	.223**	.319**	.232**	.120*	.382**	.400**	.553**	.579**	.524**	.616**				
x14	.344**	.159**	.251**	.392**	.202**	.098*	.322**	.459**	.544**	.599**	.529**	.663**	.673**			
x15	-.091	-.046	-.124*	.025	-.081	.090	.087	.073	.055	.026	.129**	.140**	.136**	.129**		
x16	-.120*	.036	-.121*	.047	-.090	.002	-.014	-.012	-.006	-.087	-.022	.022	.037	-.045	.251**	
x17	.000	.078	-.027	.072	-.060	.026	.095	-.009	.028	.059	-.035	.042	.128**	.038	.126*	.120*

x1=Employment intention; x2=Quality of life; x3=Employment desire; x4=Self esteem; x5=Guardian's expectation; x6=Friend's support; x7=Professional's support; x8=Eating habit; x9=Hygiene; x10=Appearance care; x11=Environment arrangement; x12=Financial management; x13=Health management; x14=Daily life; x15=Age; x16=Period of mental health center use; x17=Frequency of hospital admission.

\*p<.05; \*\*p<.01.

## 3. 취업의지와 관련요인 간 상관관계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와 관련 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취업의지와 취업욕구( $r=.657$ ), 보호자 기대( $r=.547$ ), 친구지지( $r=.097$ ), 전문가지지( $r=.432$ ), 식사습관( $r=.277$ ), 개인위생( $r=.363$ ), 주변정리( $r=.278$ ), 건강관리( $r=.371$ ), 일상생활( $r=.344$ ), 취업경험( $r=.123$ ), 나이( $r=-.12$ )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취업의지의 영향요인인 삶의 질, 취업욕구, 자아존중감, 보호자의 기대, 친구의 지지, 전문가의 지지, 식사습관, 개인위생, 용모관리, 주변 정리, 금전관리, 건강관리, 일상생활, 나이, 기관 이용기간, 입원 횟수 간의 상관관계는  $r=.000-.657$ 로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나타나 영향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임이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Table 3).

## 4. 취업의지 영향 요인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의 주요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취업욕구, 삶의 질, 자아 존중감, 보호자의 기대, 친구의 지지, 전문가의 지지, 일반적인 기능 수준의 7개 하위 영역을 투입하여 단계적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예측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99.93$ ,  $p=.05$ ),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sup>2</sup>)는 .611로 설명력은 61.1%였다.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는 취

Table 4. The Predictors of Employment Intention

Variable	B	S.E	$\beta$	t	Adj R <sup>2</sup>	F
Constant	6.45	1.19		5.43	.611	99.93*
Employment desire	0.90	0.07	.48	13.50*		
Professional's support	0.40	0.06	.23	6.63*		
Guardian's expectation	0.28	0.04	.26	7.03*		
Financial management	0.28	0.10	.10	2.71*		
Eating habit	0.17	0.09	.07	2.01*		
Quality of life	-0.27	0.09	-.01	-3.09*		

\*p&lt;.05.

업욕구( $\beta=.48$ ), 보호자의 기대( $\beta=.26$ ), 전문가의 지지( $\beta=.23$ ), 금전관리( $\beta=.10$ ), 식사 습관( $\beta=.07$ ), 삶의 질( $\beta=-.01$ )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취업욕구가 정신장애인의 가장 큰 취업의지 예측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취업의지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취업의지 회귀방정식=6.45+0.90\*취업욕구+0.40\*전문가 지지+0.28\*보호자 기대+0.28\*금전관리+0.17\*식사습관-0.27\*삶의 질.

## 5. 회귀가정 진단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상관관계는 .005-.675로 .80 이상인 설명변수는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93으로 2.016-1.525 범위에 있어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공차 한계(tolerance)가 .774-.961로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 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41-1.310으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문제는 없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결과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였다.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1.0을 초과하는 값은 없었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어 회귀분석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예측 요인을 밝혀,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예측 요인 분석 결과 지역사회 기관에서 현재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는 평점 3.78점이었다. 이는 보통 이상의 점수로 정

신장애인 대상으로 취업의지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보면, Park (2002)의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비취업자군 취업의지의 3.63 보다는 높았고, 취업자군 4.1점보다는 낮았으며, 정신장애인의 취업과 관련한 선행 연구(Choi, 1999; Choi, 2002; Ryu, 2003)에서의 취업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4.14-4.36점보다는 본 결과가 약간 낮게 나왔다. 본 연구 결과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낮은 이유는, 본 연구 대상자는 지역사회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이며, 선행 연구 대부분은 지역사회 기관에서 그동안 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 현재 취업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독립변수 중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예측 요인으로는 취업욕구, 보호자의 기대, 전문가의 지지, 삶의 질, 일반적 기능 수준의 하위 영역 중에서 금전관리, 식사습관으로 취업의지를 61.1%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욕구는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첫 번째 예측 요인으로 그 정도는 평균 6.12점(10점 만점)이며,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와 취업욕구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beta=.48$ ).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Kim, 2006; Nam, 2002)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거나 현재 취업 중인 정신장애인들의 84-90%가 직업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Kim (2006)의 연구에서 87%가 직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정신장애인의 취업욕구가 높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정신장애인의 대부분은 취업욕구가 높지만, 실제로 이들의 욕구가 취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 교육과 작업장 개발이 필요하고, 직업재활이 필요한 퇴원 환자를 위해 병원과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결도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자에 비해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의 수는 전국적으로 부족하여, 정신장애인들에게 취업 교육과 이에 따른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보호자의 기대는 취업의지에 미치는 두 번째 예측 요인으로 그 정도는 3.68점으로 보통보다는 높은 점수이며, 보호자의 기대는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예측 요인의 주요한 변수임이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beta=.26$ ). 따라서 부모와 가족의 기대가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와 직업유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취업에 대해 보호자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가족 상담과 지지, 가족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문가의 지지는 취업의지에 미치는 세 번째 예측 요인으로 그 정도는 3.73점으로 중간 이상의 결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예측 요인의 주요 변수임이 본 연구 결과 확인되었다( $\beta=.23$ ).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Choi, 2005; Lee, 2003)에서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가 높을수록 기관의 전문가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을 보고한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직업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Ryu (2003)의 연구에서 사회 환경적 요인인 전문가의 지지가 직업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 본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로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이 정신장애인을 위한 취업 관련 지도와 직업 알선,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를 높여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지지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취업의지 네 번째 예측 요인인 삶의 질은 5.12점(10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와 관계는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고, 취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임이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beta=-.01$ ). 본 연구에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중간정도(5.12점)로 나타난 것은 Noh (2001)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2.83점(5점 만점)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3.10점으로 증가하였다고 한 결과와 비교할 때 현재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재활 프로그램 참여기간이 2.3년임을 고려한다면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취업의지와 삶의 질과 역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이 낮은 층에서 취업을 더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 10점 척도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였으므로 이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로 측정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므로 반복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정신장애인의 마지막 취업의지 예측 요인으로는 일반적 기능 수준 하위 척도 중에서 금전관리와 식사습관이다. 금전관리는 3.42점, 식사습관은 3.33점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로 취업의지 예측에 주요한 변수임이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다(금전관리:  $\beta=.099$ , 식사습관:  $\beta=.072$ ). 일반적인 기능의 전체 평균은 3.45점으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연구(Choi, 1999; Choi, 2002)에서의 전체 평균 3.77-3.80점보다 본 연구 결과가 약간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업중인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Choi

(1999)의 연구에서는 일반기능수준은 정신장애인의 직업 유지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였다. 그러나 취업한 경험이 있거나 취업 중인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Choi (2002)한 연구에서도 일반적인 기능 수준은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직업유지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취업 전인데 반하여 선행 연구(Choi, 1999, Choi, 2002)는 취업 유지 상태이므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일반적인 기능 수준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성공적인 직업재활을 위하여 직업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초가 되므로 취업을 원하는 정신장애인과 취업 중인 정신장애인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여섯 가지 요인인 취업욕구, 보호자의 기대, 전문가의 지지, 삶의 질, 일반적 기능 수준 하위 척도 중에서 금전관리, 식사습관은 취업의지 예측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이 여섯 가지 요인으로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를 61.1% 정도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가장 큰 예측 요인으로는 취업욕구로 나타났으며( $\beta=.476$ ), 보호자의 기대( $\beta=.255$ )가 그 다음으로 큰 예측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정신장애인의 취업에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직업 재활 욕구에 관한 연구, 취업유지나 취업여부에 따른 상관관계를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예측 요인을 검증하여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정신장애인에게 질 높은 사례관리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를 높여서 직업재활 및 사회 복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리라고 본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예측 요인을 파악하고 규명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직·간접적인 중재를 개발하고 나아가 업무의 질 향상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는 평점 3.78이었고, 관련 요인으로 삶의 질 5.12점, 취업욕구 6.12점, 자아 존중감, 3.17점, 보호자의 기대 3.68점, 친구의 지지 2.88점, 전문가의 지지 3.73점, 일반적 기능수준 3.45점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취업의지 예측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취업의지는 친구의 지지, 취업 경험, 일반적 기능수준의 하위 영역 중에서 식사습관, 주변정리, 개인위생, 금전관리, 용모관리, 건강관리와 전문가의 지지,

보호자의 기대, 취업욕구와 손상관계를 보였으며( $r=.000\sim .657$ ,  $p<.001$ ). 삶의 질, 나이, 기관의 이용기관과는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r= -.049 \sim -.120$ ,  $p<.05$ ).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영향 요인은 취업욕구( $\beta=.48$ ), 보호자의 기대( $\beta=.26$ ), 전문가의 지지( $\beta=.23$ ), 삶의 질( $\beta=-.01$ ), 금전관리( $\beta=.10$ ), 식사습관( $\beta=.07$ )으로 취업의지를 61.1%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취업욕구, 보호자의 기대, 전문가의 지지, 삶의 질, 금전관리, 식사습관은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예측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 외에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예측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일반적인 기능 수준은 성공적인 직업재활을 위하여 직업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초가 되므로 취업을 원하는 정신장애인과 취업중인 정신장애인 간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예측 요인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Anthony, W. A. (1994).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that are predictive of entry into the rehabilitation process and successful employment.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17(3), 3-10.
- Bond, G. R., Resnick, S. G., Drake, R. E., Xie, H., McHugo, G. J., & Bebout, R. R. (2001). Does competitive employment improve nonvocational outcomes in 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 489-501.
- Choi, E. Y. (2002). *A exploratory research o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tors affecting on the job maintenance for the mental disor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Choi, H. S. (1999). *A study on the predictor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outcome for persons with schizophren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Choi, L. H. (2005).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job maintenance period of mental disor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 Chu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unsei Nonchong*, 11, 109-129.
- Coopersmith, S.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Dahlem, N. W., Zimet, G. D., & Walker, R. R. (1991).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 confirmation stud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7, 756-761.
- Disabled Persons Welfare Act. (2004).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Retrived March 1, 2008, from <http://likms.assembly.go.kr>
- Katz, S., & Akpom, C. A. (1976). Index of ADL. *Medical Care*, 14 (Suppl 5), 116-118.
- Kim, H. S. (2006). *A study on desire for employment among person with mental disor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Lawton, M. P., & Brody, E. M. (1969). Assessment of older people: Self-maintaining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 Gerontologist*, 9, 179-186.
- Lee, G. J. (2000). *A study on the factor affecting on the duration of job maintenance for the mental disor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J. H. (2003). *A study on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the social adjustment of the mentally disabled: Focusing on users of mental health service centers in local commun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Daejeon.
- Lee, J. H. (2005). *Effects of community mental health programs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mentally ill*.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Lee, Y. R. (2001). *A Study on the factors predicting on social integration of the mental disorders in social rehabilitation fac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Lehman, A. F. (1983). The well-being of chronic mental pati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0, 369-373.
- Mechanic, D. (1986). The challenge of chronic mental illness: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view.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37, 891-896.
- Mental Health Act. Retrieved March 1, 2008, from <http://www.lawnb.com>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7). *Social welfare programs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m, S. J. (2002). *A study on the need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Noh, I. Y. (2001). *Comparative research of the medical cost, the quality of life, the family burden of the mentally ill before and after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Park, J. Y. (2002). *A comparative study on quality of life self-esteem with work status in mentally handicapped pers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Pilisuk, M. (2001). A job and a home: Social networks and the integration of the mentally disabled in the communi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1, 49-60.



- Rosenberg, M. (1973).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u, J. S. (200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job maintenance for the mental disor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Tsang, H., Ng, B., Chiu, I. Y., & Mann, S. (2000). Predictors of post-hospital employment status for psychiatric patients in Hong Kong: From perceptions of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to empirical evid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46, 306-312.
- Van Dongen, C. J. (1996). Quality of life and self-esteem in working and nonworking persons with mental illnes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2, 535-548.
- Vaquera, E., & Kao, G. (2008). Do you like me as much as I like you? Friendship reciprocity and its effects on school outcomes among adolescents. *Social Science Research*, 37, 55-72.
- Wehman, P., & McLaughlin, P. (1980). *Vocational curriculum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 Baltimore, MD: University Park Press.
- WHO. (198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Short version*. Geneva, WHO. Retrieved March 1, 2008, from <http://www.who.int/classifications/icf>
- Woo, J. Y. (2002). *Relationships between ego-states and quality of life among person with mental disor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